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중앙아시아 경제에 드리워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암

Kunduz Bakytova

석사과정, 러시아·CIS 개발협력 전공

k.bakytova@yahoo.com

세계은행의 중앙아시아 송금액 증감 예측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으로 명명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지 1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세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중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주지하듯, 다수의 중앙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자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온 송금액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송금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열흘 만에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송금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는 송금액이 폴란드와 기타 국가들의 송금액 증가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앙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송금 흐름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구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 내 중앙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중앙아로 들어가는 송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이란 예측이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전반의 타격이 단기적으로 중앙아시아 송금 흐름에 이중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표 1. 중앙아 국가별 송금유입액 및 증감을

국가	송금유입액 (2021, 백만 달러)	GDP 중 송금유입액 비율(2021)	전제 송금유입액 중 러시아 의존 비율 (2021, 1-3분기)	당초 송금유입액 예상 증감률 (2022)	전쟁 발발 후 송금유입액 예상 증감률 (2022)	실제 송금유입액 증감률* (2022)
카자흐스탄	374	0.20%	51%	7%	-17%	+52.6%
키르기스스탄	2,423	31.30%	83%	3%	-33%	+5.7%
타지키스탄	2,187	26.70%	58%	2%	-22%	+83%
우즈베키스탄	6,980	11.60%	55%	3%	-21%	+78.3%

자료: World Bank, 2022. Russia-Ukraine Conflict: Implications for Remittance Flows to Ukraine and Central Asia p.3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각 국영 은행 사이트의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 투르크메니스탄은 통계자료 접근 불가

도리어 늘어난 송금유입액

그러나 세계은행의 예측과는 반대로 중앙아 국가들의 송금유입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22년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온 송금유입액이 전년 대비 2.1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로부터 송금 받는 금액이 국가 전체 GDP의 약 1/3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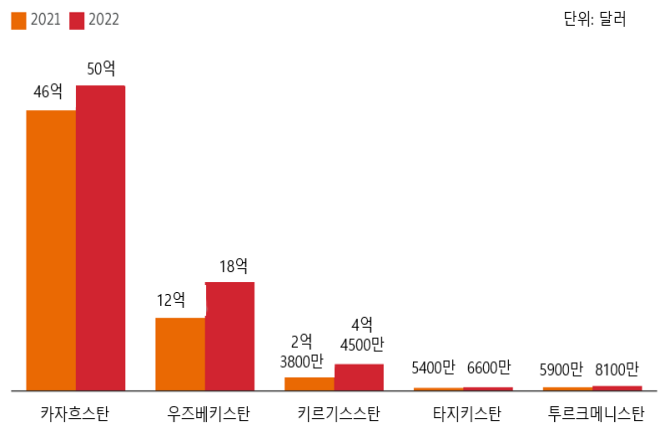
하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예측과 다른 이런 결과를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러 수출 급증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러 교역국이 서구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중앙아시아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2022년 중앙아 각국의 대러 수출 현황을 보면 카자흐스탄은 전년 대비 8.6%, 키르기스스탄은 87%, 타지키스탄은 22.2%, 우즈베키스탄은 50%, 투르크메니스탄은 37.2% 증가했다.

중앙아 각국의 대러 수출 증가

중앙아 국가들로 유입되는 송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또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러시아 국내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을 피해 러시아 시장에서 잠시 철수한 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진입하려는 전략 아래 인접한 중앙아 국가들을 진출 시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2022년 카자흐스탄의 외국기업 수는 45,000여 개로 2021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전체 외국기업 1/3의 소유자 국적은 러시아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러시아인들이 소유한 기업 수가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기업 역시 대체 진출지로 중앙아시아를 택한 것이다. 전쟁의 여파로 인한 러시아인들의 국외 이주도 중앙아 지역으로의 송금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9월 크렘린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가 부쩍 늘어났고 이와 함께 송금액도 증가했다.

그림 1. 중앙아 각국의 대러 수출액



중앙아 경제에 드리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암

무려 일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끝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길어지는 전쟁은 중앙아 경제에 명암을 동시에 드러낸다. 대러 수출과 유입송금액 증가로 중앙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민초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다. 에너지 부족, 임대료 상승, 식료품 가격 폭등, 빈곤율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중앙아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송금액에 크게 영향을 받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매우 취약하고 늘 불안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신중한 조치와 더불어 효율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 경제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